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톈진외국어대학교	기숙사비	7200/한 학기
파견지역	톈진	기숙사비 납부방법	분할납부(매달)
파견기간	2017.09.04.~2018.01.12. 2018.03.02.~2018.07.25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명		학과	
성별		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안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7.

파견자 : (서 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천진외국어대학교는 난이도 별로 반이 많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총 초급1,2,3반, 중급반, 중급 1,2,3,4반, 중고급반, 고급1,2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급반은 중국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친구들부터 HSK3~4급, 중급반은 HSK4~5급, 고급반은 HSK5~6급을 준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우선 모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은 간단한 질문에 중국어로 답을 하는 것, 간단한 4지선다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수업은 말하기,듣기,짱두,독해 수업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초급반을 제외하고 중급반부터는 ppt발표 과제와 연극 과제가 있습니다. 학기마다 수업진행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고급반의 경우에는 듣기수업 대신 중국어 영화를 보고 말하는 수업으로, 그리고 쓰기 수업이 추가됩니다. 모든 수업마다 다른 중국어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수업 시간은 8시, 10시, 2시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말하기 수업의 경우 교과서를 보고 읽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주제나 그 외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편을 나누어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께서 주제를 주시면 인견이 정리된 사람부터 자신의 인견을 중국어로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하기 수업의 경우에는 조를 편성하여 연극을 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말하는 수업시간은 제가 처음 천진에 도착해 커리큘럼을 봤을 때 가장 기대했던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루한 수업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약 5분 단위로 선생님께서 정지버튼을 누르시면 한 명 씩 돌아가며 줄거리에 대해 요약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수업을 두 학기 동안 들으면서 그냥 집에 가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수업시간에 할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면서 일상회화에서 쓰이는 화법들을 많이 익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짱두는 종합 독해의 느낌으로 중국의 문화나 역사 내용의 글들로 이루어진 교과서를 공부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어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기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단어, 사자성어, 중국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독해 수업은 HSK 독해 지문을 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주시면 그 안에 문제를 풀고, 답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해설을 합니다. 짱두 수업은 예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으므로 예습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시간 외에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면 수업시간 내에 되도록 많이 말하고, 질문하며 집중해도 중국어 실력은 오를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잘 참여하면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천진은 생각했던 것에 비해 공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많이 건조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쫘에는 적응이 돼서 전보다 괜찮았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목이 많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미니 가습기도 구매하고,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한국과 비슷하게 덥고, 비슷하게 춥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날씨가 조금 변덕스러우니 두꺼운 옷과 여름 옷을 충분히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생활을 하기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대체로 편의시설들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많지만 북경만큼은 많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편이어서 사는데는 적합한 도시 같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신기했던 것들 중 하나가 OFO라는 자전거인데 다른 도시들에 비해 천진은 이 자전거가 정말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선선한 날에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놀러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1800 / 1달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1. 2주에 한 번 씩 침대 보와 이불 커버, 베개 커버를 갈아줍니다. 층마다 요일이 다릅니다. 2.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1층 데스크에 문의를 하면 해결해줍니다.		
주인사항	1. 외부인을 방에서 재우면 안됩니다. 2. 전기용품(화재위험이 있는)을 소지하고 있으면 주의를 주시고, 압수하기도 합니다. 3. 방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됩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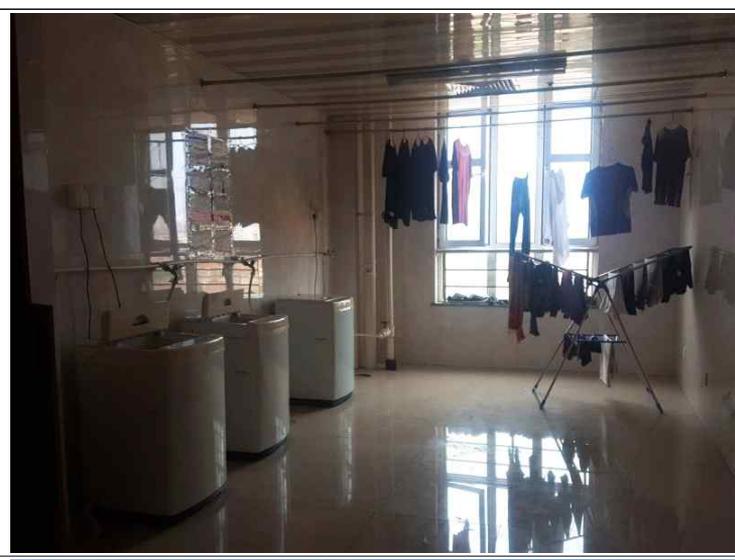


한 학기 동안 생활하는 방입니다. 룸메이트와 상의를 해서 침대와 책상의 자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크기의 차이가 있으며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각 2개씩 있습니다.



이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뜨거운 물도 나와서 커피면을 먹거나 즉석요리를 먹을 때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단 인덕션이 하나밖에 없어서 먼저 요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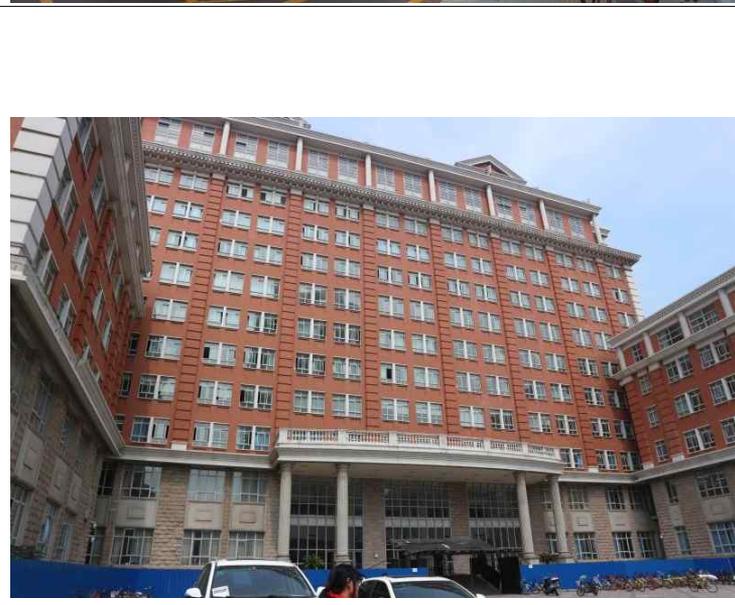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저번 학기에는 1층에 가서 코인 비슷한 것을 사서 빨래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 학기 부터는 드럼세탁기로 바뀌고, 핸드폰만 있으면 앱을 깔아 세탁을 할 때마다 웨이신이나 썬푸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곳은 학교 정문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이동을 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낮보다 더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은 이곳에서 틀습니다. 유학생들은 9층에서 12층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대 있는데 수업이 있거나 끝난 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걸어서 다녔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저는 고등학생 때 중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안서는 중국어를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는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정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려니 두려웠고,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은 그냥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음식도 느끼하고, 길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기간은 초반 1주일일 전부였습니다. 이후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주변 명소도 둘러보고, 여행도 다니며 중국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학기 초에는 1년을 할 것인지 1학기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년 이상을 이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수업시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사자성어의 경우에는 그것의 유래까지, 중국과 관련된 지식들을 아낌없이 설명해주셨습니다. 반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저는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매주 화요일 4시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몇 분 짧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놀고,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생겨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는 거의 매 달 연휴가 있어 그 때 많은 친구들이 여행을 갑니다. 저도 그 틈을 타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가는 자유여행은 처음이라 가기 전에 긴장이 됐지만, 여행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중국 교환학생을 마치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독립심을 많이 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자유여행을 많이 했는데 여행코스, 예약 등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과 대화하고, 여행 시에 생기는 돌발 상황들을 해결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독립심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초반에 학교에 도착해서는 학교 내 슈퍼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는 기차를 타고 혼자 여행을 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스스로도 많이 느낍니다.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들이나 가장 기본적인 수업을 충실히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생활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욕이 사라지니, 얻는 것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보다 저의 중국어 실력도 늘었습니다. 택배나 음식을 시켰을 때 불가피하게 아저씨들과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 알아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지만 점점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수업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보다 약간 높은 반을 들어가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반을 들어가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100% 알아듣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다보면 들리고, 들리면 재밌어서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중국어는 표준어에다 정말 천천히 말해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방언을 들을 수도 있고, 말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보면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교환학생을 하는 동안 여행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동안 총 12곳을 여행했습니다. 이 중 몇 곳은 운이 좋게 중국인 친구의 집에 가서 진정한 중국을 맛볼 수도 있었습니다. 땅이 넓은 만큼 정말 각 지역마다 분위기, 문화, 방언, 건축물, 특색음식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갈 때마다 저번에 갔던 곳과 비교를 할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얻은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미리미리 계획해서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교환학생을 간다고 그 국가의 언어가 저절로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얻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반 학기 혹은
간년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